

해외 파견대학	국가명: 프랑스/ 대학명: 이날코		해외파견대학 전공	프랑스어(Fle)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5/09/22		학기 종료일	2026/04/17
출국일	2025/09/04		귀국일	2026/06/29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Welcome to Inalfle (Online course), Écrit A2, Grammaire A2, Oral A2, Langue & médias A2	
		2학기	Atelier: Langue et médias Grammaire A2 Français oral A2 Français écrit A2 Bienvenue à Inal'FLE	
	수업방식	전부 프랑스어로만 수업했습니다. 문법수업은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발표수업도 있었습니다. 1학기때 아폴리에 수업은 중간고사 이후 학생 다같이 파리 국립도서관(paris bibliotheque richelieu)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시험방법	시험은 본인의 국가를 소개하는 PPT 발표 시험, 교수님과 무작위로 주제를 뽑아 대화하는 구술 시험, 그리고 독해와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작문 시험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 신청 시에는 원하는 과목을 양식에 맞춰 기간 내에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제공되지만, 인기 있는 수업은 정원이 빠르게 마감되어 수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참여X		
	문화프로그램	교내 프로그램 참여x(박물관 가이드 프로그램 추천받았지만 일정상 참여 못했습니다) , 현지 친구들과 2번 정도 Le Club Social France-Corée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기타	노트르담 주변 한식당(Paldo) 알바(25.09.17~26.04.30) Delf B2 어학자격증 취득 (시험일 26.5.20~21, Sorbonne Nord 학교) 16개국 유럽 국가 여행		
교내편의시설	1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 상점에 비해 빵이나 식사류, 그리고 자판기 음료 가격이 훨씬 저렴하여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카페테리아 내에 정수기도 구비되어 있으나, 보통 프랑스 현지인들은 정수기 대신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편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프랑스 교환학생 생활에서 9월에 입국하는 학생들과 1월에 입국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국립기숙사인 Crous선발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Crous는 한 달에 대략 400~500유로 선으로 가장 저렴한 숙소인 반면, 보통 자취를 하는 프랑스인 친구들은 최소 600유로 이상을 지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은 9월이 1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여유롭게 Crous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1월에 입국하는 친구들은 Crous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Sorbonne Nouvelle대학교 교환학생 친구들은 대부분 셰어하우스 형태인 Colocation을 이용했으며, 제가 다녔던 Inalco 대학교 교환학생 중에서는 colocation을 이용하는 한국인 학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Crous도 지점마다 종류와 시설이 다릅니다. 제가 지냈던 Daviel Crous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프랑스식 1층)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었으며 0층(지상층)에는 우편함, 세탁실(세탁 3.5유로, 건조 0.5유로), 그리고 쓰레기 배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Crous 규정상 기숙사에 친구나 지인을 초대할 경우 최대 3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비 납부는 온라인 플랫폼인 'MesEtudiants'을 통해 진행했으며, 매달 10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납부해야 했습니다. 퇴실 절차는 행정실에 먼저 문의한 뒤,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퇴실하면 됩니다. 이때 방 상태가 더러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은행의 경우 저는 Revolut 카드를 사용했는데, 추후 유럽에 다시 방문할 때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따로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보조금인 알로카시옹(Caf)은 파견 초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해지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 이용하던 부이그(Bouygues) 통신사와 프랑스 고속철도 할인권인 TGV Max(구독 서비스)해지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Caf(주택보조금) 26년 7월 기준 Caf 비EU 국적 + 사회기준 장학금 없는 학생 제외합니다. https://settle-visa.com/blog/ko/apl-etudiant-etranger-2026 링크 첨부합니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Inalco대학교는 약 100개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전문 대학교입니다. 학교 내부에 위치한 도서관인 BULAC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시설이 좋아 외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파리에선 한국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Inalco, Paris Cité, Sorbonne Nouvelle 이 있는데, 이 중 Inalco와 Paris Cité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관련 이벤트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두 학교는 거리도 가까운 편입니다. 현지에서 대학원이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Inalco에 입학한 학우들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Inalco 내에서 전공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언어는 1.일본어, 2.아랍어, 3.한국어 순인데 기존의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추월할 만큼 한국어의 인기가 높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으로는 평일 학생 할인이 적용되는 MK2 영화관(학생가 5.9유로)을 비롯해 다양한 회사, 음식점, 바 등이 밀집해 있으며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파리의 날씨는 9월과 10월이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산책이나 러닝을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며 날씨가 꽤 쌀쌀해집니다. 특히 현지 숙소에는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겨울 때 많이 추울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꼭 챙겨오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숙소 주변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마트들도 모두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했습니다. 식사 및 물가 측면에서는 한식당 알바가 비용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에는 화·수·목·일 저녁 타임에, 2026년에는 화·수·목 저녁 타임에 한식당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프랑스 노동법상 알바 전후로 식사가 무조건 제공되기 때문에, 덕분에 식비를 일주일에 30유로 안팎으로 크게 아낄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마트 물가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큰데, Monoprix가 가장 비싼 편입니다. 저는 주로 Tolbiac 근처의 한인마트인 Ace Mart나 Intermarché를 이용했습니다. Intermarché에서도 다양한 아시아 식재료를 판매하는데, 굴소스 같은 품목은 Ace mart보다 저렴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장바구니 물가는 대략 쌀 1kg에 1.5~2유로, 삼겹살 500g에 5~6유로 선입니다. 외식을 할 때는 가성비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 Bouillon Chartier같은 경우는 1인당 15~17유로 선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쌀국수의 경우에도 14유로 미만으로 가성비가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파리의 외식 물가는 보통 저렴한 곳이 15~17유로대, 비싼 측에 속하는 곳은 20~25유로 선(예: 오리 스테이크 24유로)입니다. 식당을 고르실 때는 전체 요리와 본 요리(Entrée + Plat), 혹은 본 요리와 디저트(Plat + Dessert) 세트로 구성된 메뉴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며, 특히 점심 시간대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식당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외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인들 말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점심 한 끼에 10유로대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올라 대략 15유로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의료의 경우, 파견 기간 동안 병원에 갈 일이 전혀 없어 잘 모르지만 필수 행정인 프랑스 의료보험 ameli는 입국 후 가입해 두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영국 기반의 디지털 은행인 Revolut가 가장 유용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애플페이도 완벽히 지원되어 대부분의 일상 결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Navigo Liberté처럼 프랑스 현지 계좌로만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 Revolut만으로는 가입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은행을 이용하실 분들은 'BNP'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한국에서의 송금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편리한 '모인'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교통의 경우, 파리 시내의 서울의 6분의 1 크기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 대신 8개월 동안 자전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지하철로 30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로 10분 만에 이동했을 만큼 효율적입니다. 파리의 Velib(따릉이 원조)외에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Voi(30분당 약 3유로), Dott/Lime(30분당 약 4유로) 등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통비를 아끼려고 'Navigo Imagine R' 패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유럽 여행을 다니며 파리 공항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편도 14유로씩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패스를 끊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Bouygues' 통신사의 이심을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9.99유로로 80GB의 넉넉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속도 또한 한국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서는 주로 기숙사 와이파이를 사용해 데이터를 아꼈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프랑스 입국 전, 카카오 보험과 프랑스 ameli, 그리고 현지 결제를 위한 Revolut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통신사는 부이그를 선택했는데, 입국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처음 9월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는 물건 구매부터 모든 것이 낯설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했던 프랑스어가 현지 실생활에서는 다르게 쓰여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문화(ex) 엘리베이터 안)나 마트의 보편적인 결제 키오스크 시스템에 익숙해지며 차츰 적응해 나갔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대체로 친절하며, 다행히 저는 파견 기간 동안 인종차별을 겪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도 높는데, 넷플릭스 <솔로지옥>이나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짜지 않은 한식은 현지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주스나 아이스크림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점(프랑스 설탕세), 그리고 강아지들이 지하철, 기차, 식당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도 자주 이용했는데, 프랑스는 주로 건물 정문을 열쇠로 열어야 해서 라이더를 만나러 정문 밖까지 나가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이나 배달팁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교통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지만 인도에서 주행 시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 문화의 경우 일반 담뱃값이 11~12유로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은 주로 말아서 피는 담배(Cigarette roulant)를 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안은 제 기준에서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 경찰들이 자주 순찰을 돌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프랑스 친구가 "한국이 이례적으로 안전한 국가인 것이지, 프랑스도 타 유럽 국가에 비하면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말해준 것처럼,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인다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좋습니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파견교 국제교류부에서 진행한 버디 프로그램과 오리엔테이션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의 경우 이메일 주소 제공 후 1:1 매칭 시스템으로 매칭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소 단순한 시스템일 수 있지만, 덕분에 프랑스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얻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당일에 안내받은 수강 신청 방법과 현지 학생들의 학교 소개도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Crou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이메일 공지되니 일정을 잘 맞춰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학사 운영 및 어학 지원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프랑스어 분반 선택이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첫 학기에 A2 수업을 수강한 후, 두 번째 학기에는 실력을 높여 B1이나 B2 수업을 수강하고 싶었으나 선택권 없이 다시 A2 수업을 강제로 수강해야 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DELF B2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견교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해 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나, 일부 교수님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필요한 조언을 얻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초기, 저는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25년에는 한국인 친구 없이 프랑스인 친구들과만 지냈는데, 덕분에 프랑스어 회화 실력은 극적으로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주 4일(화·수·목·일) 한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여행을 다니지 못했기에, 한국인 교환학생들끼리 모여 여행을 가고 추억을 쌓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26년, 아르바이트 일정이 화·수·목요일로 조정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동시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1월에 기숙사에서 우연히 DELF B2를 취득한 한국인 학생을 만난 후, '4개월 안에 B2를 취득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후 저의 일상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자전거를 타고 식당으로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기숙사 공용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새벽 1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을 이용해 주변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프랑스인 친구들과 클럽에 가거나 센강에서 시간을 보내고, 러닝을 하거나 친구 집에서 축구를 보는 등 현지 문화도 톡톡이 즐겼습니다.

또한, 한식당에서 함께 일한 교포 동료들과 손님들을 통해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고, 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았습니다. 또한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난 덕분에 프랑스의 노동 복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식사 지원/교통 지원/건강보험+1달 2번 유급휴가)

5월 중순, 마침내 시험을 치른 후에는 그동안 미뤘던 유럽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총 16개국을 여행했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는 학생 신분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 파리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부지런히 둘러본 뒤 6월 28일 귀국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복지를 경험하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무언가 성취를 남기고 싶어 DELF B2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여행도 놓치고 싶지 않아 모아둔 돈으로 유럽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계획하여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휩쓸리기보다, 본인만의 관심사와 꿈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채워나가는 것이 훨씬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본인은 해외자매결연대학 파견교환학생으로 파견을 종료하고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 월 5일

파견자 :

해외 파견대학	프랑스 / 이날코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프랑스어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5/09/10	학기 종료일	2026/04/17
출국일	2025/09/30	귀국일	2026/07/01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oral, écrite
		2학기	écrite, grammaire
	수업방식	대면 수업	
	시험방법	대면 시험 (구두 시험, 시험지 문제 풀이, 작문 등)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선착순 수강신청 종이 제출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버디 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카페테리아, 도서관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매달 초 프랑스 기숙사 사이트(https://messervices.etudiant.gouv.fr/choix-crous/citeu)에서 월세를 납부해야 함 - 입주 시, 방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남겨둘 것 - 퇴실 전 청소를 하고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 교통권 구독 취소 (이마지네R, TGV MAX) - 통신사 해지 - caf 해지 - 레볼루크 계좌 해지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학교는 파리 13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서관이 크고 학교 주변에 저가형 마트 Lidl이 있어 끼니를 해결하기 좋음 기숙사는 crous Daviel에 머물렀으며 학교와 버스타고 약 20분 정도 걸림 기숙사 내에서 다양한 행사도 존재하고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음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조금 더 많은 편이며 이번 여름에는 폭염이 발생하여 매우 더웠음.(선풍기 필수) 여름에는 해가 11시 돼서야 짐. -숙소: 위치도 좋고 주변에 마트도 많아서 좋았음 -식사: 외식비는 비싼 편으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제했음 근처에 아시안마트를 이용하여 한식을 자주 요리해서 먹음 -물가: 전반적인 물가는 한국보다 높으며 환율 변동의 폭이 커서 시기에 따라 지출 부담이 달라졌음. 마트를 이용하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음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의료: doctolib 앱을 통해 의사선생님을 선택하고 예약을 잡아야 진료를 볼 수 있음 -은행: 현지 계좌 레볼루트를 이용하여 송금 및 결제, 자동이체를 설정해둬 레볼루트 초대 링크: (https://revolut.com/referral/?referral-code=harangzaes!JUL1-26-VR-FR&go-redirect) -교통: TGV Max 구독하여 0원표로 다른 지역 여행하기, 파리 장기 거주 시 이마지네 R 구독하기 -통신: 부이그 e-sim 가장 저렴한 요금제 사용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프랑스에서는 가게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마주칠 때 먼저 bonjour라고 인사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음. 지하철이나 건물 출입문에서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항상 잡아주며 사람이 너무 많아 지나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pardon 이라고 말하면 모두 길을 비켜줌. 서로 부딪힌 상황에서도 먼저 pardon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음. 프랑스는 행정 처리 속도가 느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기 쉽지 않음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생활과 행정 절차, 수강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음. 교환학생 생활 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주셨음. 또한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좋았으나 버디 프로그램이 전북대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혀있지 않아 서로 주도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야지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음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교환학생 기간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기에 후회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를 바라며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좋은 추억을 쌓고 오면 좋겠음

해외 파견대학	프랑스 / INALCO		해외파견대학 전공	프랑스어(FLE)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5/09/10		학기 종료일	2026/04/17
출국일	2025/08/31		귀국일	2026/07/01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écrit A2, oral A2	
		2학기	écrit A2, grammaire A2	
	수업방식	학생들과 교수님이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참여형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시험방법	각 과목 특성에 맞춰 Écrit는 작문/독해 시험, Oral은 교수님과 1:1대화 시험, Grammaire는 한국과 비슷한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원하는 수업이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메일을 보내 신청하는 것을 추천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자판기(과자, 음료), 정수기, 커피자판기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출국 준비 시, 기숙사 관리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비행기 항공편을 잘 확인하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녁 늦게 도착할 경우 하루 묵을 숙소를 따로 예약해야 할 수도 있다. 퇴실할 때에는 CROUS 홈페이지에서 퇴실 날짜와 방 점검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하고 예약한 시간에 관리자가 방문하여 방 상태를 확인한 후 퇴실 절차가 진행되었다. 기숙사 납부방법은 CROUS 홈페이지에 매달 초 충전식으로 돈을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귀국 전에는 통신사, Revolut 계좌, Navigo 이용권, TGV Max 등 사용하던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필요했다. Bouygues, Navigo, TGV Max는 중도 해지 시 서비스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ex.프랑스 학업 종료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해지가 가능했다. 각 사이트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서 확인 후 제출하면 된다. Revolut 계좌는 기숙사 보증금이 해당 계좌로 환급되기 때문에 ,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한국에서 해지하면 된다.			
기타참고사항	네이버 카페인 프잘사를 통해, 필요한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INALCO는 언어 전문 학교인 만큼 교환학생들에게 친화적인 분위기였으며, 행정 업무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었다. 한국 대학처럼 하나의 넓은 캠퍼스 형태가 아니라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 숙소는 Daviel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주변에 마트, 빵집, 지하철역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도보권에 있어 생활하기 편리했다. 기숙사에서 학교(INALCO)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프랑스는 대부분의 건물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부채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숙사 비용으로는 한 달에 대략 408유로 정도였지만 caf 지원금을 대략 132유로를 받아 276유로를 지불했다. 하지만 2026년 7월부터 유학생을 위한 caf지원금이 사라진다고 하니 이후 파견 학생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외식 물가가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식사를 해결했다. 다행히 주변에 아시안 마트(Tang frères)와 한인 마트(Ace mart)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식재료를 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출국 전 한국에서 해외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실제로 병원을 한 번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Carte Vitale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은 현지 도착 후 Revolut 계좌를 개설하여 통신비와 TGV Max 등 정기 구독료를 자동이체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 외 생활비는 트래블월렛 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교통은 Navigo 연간 이용권을 신청하여 파리 시내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했다. 통신사는 bouygues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했으면 가입할 때 EU국가 데이터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할 수 있다. (캡쳐해두면 편함)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출국 전에는 캠퍼스 프랑스 절차와 비자 발급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특히 비자 서류는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짐은 쌀 때는, 의류를 너무 많이 가져오기보다는 생필품과 상비약을 충분히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현지 생활을 하면서 느낀 특별한 문화 충격은 없었던 것 같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파견교에서는 버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전북대학교처럼 정기적인 활동이나 의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칭된 버디와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다. 개인적으로는 버디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버디 프로그램은 현지 친구를 사귀고 적응을 위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사람에 따라 만족도는 충분히 달라질 것 같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다행히 한 번도 소매치기를 직접 겪거나 본 적은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경계심을 가지고 소지품을 잘 관리하려고 신경썼다. 또한 프랑스는 며칠 전 미리 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복잡하고 느린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도록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개인에게 맞는 상비약을 다양하게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기간 후회가 남지 않도록 현지 친구들과 많이 교류하고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길 바란다.